

베루, 박남은/성숙 선교사 선교 편지

온 세계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시편 67:2

2022년 11월 20일 발송

사랑하는 베루 선교 동역자님에게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끝이 안보이던 팬데믹의 공포와 어려움이 이제 조금씩 저희들의 활동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저희 부부도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7월 초순경에 와싸오, 새생명 교회로 귀가하였습니다. 주중 임에도 여러 교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폭죽을 터뜨리며 뜨거운 환영을 하여 주었습니다. 긴 시간을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 안에 이어진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재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새생명 교회 자치 운영 공동체가 원활히 활동하여 팬데믹 발생 이후 곧바로 비대면 집회 모드로 전환하였고, 주일학교와 주일 대 예배를 영상으로 전송하여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진행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공식적으로 대면 집회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착후 제일 먼저, 작년에 구입한 빠따밤바 지교회 부지를 방문 하였습니다. 새생명 교회 식구들과 함께 건축 부지를 방문하여, 1500m² 넓이의 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이어서 교인들과 부지 정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부지가 산 비탈에 위치하여 나무와 잡풀 제거는 물론이고, 성전 부지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한 부지 정리 작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가파른 산 비탈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400m² 정도의 건축 부지를 확보하여 성전 본당, 식당(다목적 강당), 부엌, 교실 3 개, 화장실이 들어설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110m²의 본당은 단층으로 세워질 계획이고, 식당과 교육관 건물은 2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부대 시설인 운동장과 사택 시설은 2차 건축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빠따밤바 지교회 성전 공사는 새생명 교회의 교인 대표인 예수스(Jesus)형제가 전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젠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문 분야의 일들을 책임을 맡겨서 진행하기가 수월해 졌습니다. 빠따밤바는 지역적으로 4000m 고산에 위치해 있어서 일꾼들과 건축 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



니다. 그러나, 신실한 일꾼들의 수고와 노고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동안 문을 닫고 사용이 제한되었던 교회 시설이 완전히 개방됨과 함께 새생명 교회 전식구들의 "대 청소의 날"이 선포 되었습니다. 새생명 교회의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교회 안 밖에 새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교회 내, 외부 페인트, 가구 세척, 부엌 집기 살균 등 팬데믹의 먼지들을 다 털어 버리며, 마치 새 살림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교인들이 교회 미화 작업에 참가 하였습니다. 이제 차차로 교회가 자신들이 아끼고 가꾸어야 할 영혼의 보금자리임을 깨달아 가는듯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으로 14 살을 맞는 새생명 교회의 비전 구호를 "선교적 교회로 도약" (Emergiendo como una iglesia misionera) 이라고 정하여 공표 하였습니다. 몇해 전부터 선교 훈련을 통하여 인근 지역 교회를 섬기는 소규모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금년부터 는 정식으로 교인들 대상으로 합숙 훈련을 하고, 전교회 적으로 선교적 소명 의식과 선교적 삶을 통한 지역 전도 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지역 선교에서 세계 선교로 까지 꿈을 펼쳐 나가 도록 선교 비전을 제시하고, 한달간 "선교의 달"을 선포하여 와싸오 마을을 대상으로 노방전도와 개인전도를 실행하였습니다. 한주간 집중적으로 빠따밤바와 와싸오 마을의 중앙 광장과 가정 방문을 중심으로 전교인이 전도 집회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젠 자신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귀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9 월은 빠루 개신교에서 선정한 "성경의 달" 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통하여 새생명 교회의 교인 들에게 성경 보급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성경에 관한 배너 제작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 장년을 포함하여 90 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기발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각자가 성경을 주제로 한 배너를 제출 하였습니다. 우승자 2 명에게 자전거를 상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9 월 18 일, 주일에는 각자가 제작한 배너를 들고, 와싸오 마을을 돌며 "성경의 달" 가두 페레이드를 하며 성경에 대한 홍보와 전도지를 함께 나누며 시가를 행진하였습니다.





9월 26일 주일, 새생명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집회가 제한되어 있다가 모처럼 갖게 되었던 귀한 잔치였습니다. 오랫동안 맞는 큰 잔치 준비로 며칠전부터 교회 청소, 미화, 실내 꽃 장식과 음식 준비로 부산하였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엔 감사 예배에 이어서 주일학교 반별 특별 축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인근 교회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참석하여 기쁨의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당 관리비 기금 마련을 위하여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창고안에 오래 방치되어 두었던 의류들과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정리하여 이웃 나눔의 의미를 부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들을 구입하는 얼굴들에서는 모두 감사와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회 창고를 메웠던 물건들도 말끔히 정리 되었습니다. 이날 매출은 장장 2100 송 (550 여불~) 모금된 기금은 옥상 지붕 공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땀을 흘리는 남자 교인들과 아침 일찍부터 장작불을 피우며, 아침,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여자 교인들의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빠따밤바의 주말 하루를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콘크리트 바닥에 자신의 땀과 발자국을 남겼다고 모두들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빠따밤바 성전 교육관 2층을 올리며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여의치 않아서 콘크리트 재료들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하는 "인해전술" 공사입니다. 이날 60여명의 교인들이 동원되어서 6시간만에 말끔히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비지



요즘 새생명 교회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흥 도상에 있습니다. 매주 모이기를 힘쓰는 열정과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매달 철야 기도회를 가지며 뜨거운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옥상 공간을 청년 예배실과 친교 활동 공간으로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옥상 지붕을 더 연장시켜서 모임 장소를 더 확장 시키는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미래의 리더들인 청년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윗 사진은 며칠전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새벽에 찍은 청년들 사진입니다)





새생명 교회의 주일학교 역시 크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시설이 따로 없는 인근 현지인 교회들의 학부모들까지 새생명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새생명 교회 주일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

습니다. 현재 12명의 교사들이 5개 반으로 나뉘어서 매 주일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일학교의 의자가 모자라 90개의 의자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간 주일학교 전체 행사로 실행되었던 소풍도 이젠 학년별 소단위로 나누어 가야하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새생명 어린 영혼들의 교육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외부 강사님을 초청하여 귀한 강의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정기 적으로 실시하는 교사 수련회 이었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외부 강사님을 초청하여 특별한 훈련 시간을 통하여 교수법과 실기 이론등의 소중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사 수련회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물론 "사랑의 선물" 교사들과 교회 임원들까지 20여명이 참석하여 특별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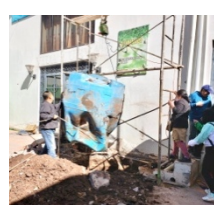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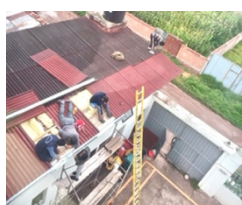


"사랑의 선물"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사역이 다시 활기를 찾고,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 아동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자녀들의 교육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좋은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단계로 발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된 "아버지를 위한 세미나"에는 50여명의 아버지들이 참가하여서 자녀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달에 2번씩 "사랑의 선물" 아동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는 주중에 모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새생명 교회의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교회에 바쳐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좋은 모습들 입니다.



와싸오 새생명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더 풍성해 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출석이 급증하여 분반 계획과 교실 증설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신앙 열심으로 그들만의 예배 공간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부터는 유급 영어 교실과 피아노 교실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본 교회 청년중에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며 학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학업 능력과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늘려 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온 와싸오 새생명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교회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심일조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교인들도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교인을 동원하는 공동 작업을 소집하면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호응하여 참석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들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리더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재생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1. 새생명 교회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더 많은 교인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
2. 새생명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1인 2명 이상 전도.
3. 새생명 교회의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4. 새생명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자치 운영 위원회 임원들, 하이메 목사부부, 박 선교사 부부.
5. 빠따밤바 지교회 건축이 사고없이 무난히 진행되도록; 헤수스 형제(전체 책임), 옛손 형제(지붕 설치)
6. 빠따밤바 지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조달 되도록; 지붕, 미장, 전기, 상/하수도, 타일, 조경.
7. 벤따니아 선교관 활용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교회들의 행사에 활용되는 선교관이 되도록.
8. 박 선교사 부부의 건강을 위하여.



14 주년 창립 기념 주일(09/26)에 찍은 사진입니다.

Jaime 목사, Tania 사모, Sara 선교사, Nicolas 선교사

주님의 나라 확장에 씩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